

고흥군 명칭 100년 '역사와 미래' 한눈에

고흥군이 올해로 '고흥(高興) 명칭을 사용한 지 100년을 맞았다. 흥군은 고흥군 명칭사용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컨셉으로 잡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령 111호로 지방행정 구역을 개편하며 금산면과 봉래면, 백일도, 득량도 등을 편입해 '흥양군'을 '고흥군'으로 개칭했다.

군은 이번 기념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와 각종 행사 등을 통해 흥군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흥군의 위상과 군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며 더 밝고 발전적인 군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타임캡슐' 등 기념행사 다채
발자취 100선·화보집 발간
연말까지 '소망의 등' 달기

군은 기념사업으로 100년 후의 후손들에게 흥군의 역사와 현주소를 담은 자료를 생생하게 남겨줄 수 있도록 '타임캡슐'을 설치하고 ▲지난 100년의 군 발전성과 군민 생활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흥의 발자취 100선' 발간 ▲고흥군 명칭 100년 '기념화보집' 발간 ▲군민의 날 행사시 기념퍼포먼스 추진 등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또한 흥군 명칭사용 100주년의 의의

를 군민과 함께 공감하고 군민 대화합의 계기로 삼고자 연말까지 군청, 각 읍면 등에 '소망의 등(燈) 달기' 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타임캡슐은 11월 30일까지 군·읍면 사진과 역사적인 자료, 각종 발행물·신문, 문화·체육·생활 관련 물품 등을 수집해 12월 31일 군청 존심당양 화단에 봉안할 예정이다. 개봉은 100년 후인 2114년에 하게 된다.

'고흥의 발자취 100선'은 최초 전기기상과 나로호 발사성공, 흥양만·해장만 간척지 준공, 나로대교·거금대교 개통 등 100년간 흥군의 발전·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과 행사를 수록하게 된다. 화보집 역시 간척지 개발모습, 운동회·소풍 사진, 세시풍속(결혼·환갑), 군민 소유 역사적

유물·생활 사진 위주로 제작된다. '소망의 등'은 연말까지 군청사내와 문화회관 소공원, 남계천변 등지에 청사초롱 외부 갓을 한 전등 7000여 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통해 흥군발전의 전환점을 모색하고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전시성 보다는 역사성·보호성에 중점을 둔 알찬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단순한 지명변경이 아니라 현재의 흥군 형태를 유지해 100년을 맞이한 의미를 갖는다"며 "지난 100년간 역사의 세월을 발판삼아, 새로운 100년을 흥군의 재도약과 희망찬 미래로 열어 나가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보성교육지원청이 매주 토요일 7차례에 걸쳐 영재 토요일특강을 진행한다. 최근 열린 첫 번째 특강 참가 학생들.

“독서로 ‘꿈 그릇’을 채워나가자”

보성교육청, 강 건 작가 초청 첫 번째 영재 토요일특강

보성 교육지원청(교육장 윤남순)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매주 토요일 7회에 걸쳐 영재 토요일특강을 펼친다. 특강은 학기 중에 이뤄지는 영재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인문독서와 미술, 역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보성 영재교육원 학생과 일반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는 토요일 특강 프로그램은 영재 학생들이 미래사회의 핵심인재로 자리나기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 기술을 배우고, 알찬 강의로 이뤄지게 된다. 최근 열린 첫 번째 토요일특강은 '강건 인문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 건 작가를 초빙해 '꿈과 독서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 작가는 10년의 무명세월을 극복해 얻은 깨달음으로 국민적 스타가 된 개그맨과 119번 오디션에 낙방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여 연기대상을 받은 배우 등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공한 인물들의 사례를 들려 "꿈이 적으면 그릇이 작아져서 들어갈 것이 없다. 꿈을 크게 꾸어 그릇을 키우고, 독서를 통해 그릇을 채워나가자"고 강조했다.

최근 열린 첫 번째 토요일특강은 '강건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 소리축제 '보성아리랑' 초연 퍼포먼스 아나아가 지난 25일 보성을 다향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서원제 보성소리축제' 특별무대에서 '보성 아리랑'을 초연하고 있다. '보성 아리랑'은 독특한 보성의 문화와 이야기를 담아 낸 신작 가요이다. <보성군 제공>

단풍 절정기를 맞아 '제38회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가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구례군 지리산 피아골 일원에서 개최된다.

'삼홍(三紅)과 함께하는 오색 단풍여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마련된다.

축제는 국가의 안녕과 국민 행복,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지원하는 단풍제로 시작되며, 음복으로 구례에서 생산된 축부

은어 구워 먹고 오색 단풍에 푸~욱

내달 1~2일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쟁이로 만든 떡과 쿠키를 맛볼 수 있다. 단풍공원에서는 섬진강 은어잡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잡은 은어를 현장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으며 즉석으로 산행의 피곤함을 풀 수 있다. '지리산 반달곰을 찾아라'에 참여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는 박애분 작가의 친필 서명이 된 동화책 '피아골 아기곰'을 증정한다. '피아골 단풍페스티벌'에 참여하면 황금으로 만들어진 단풍잎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둘째 날에는 단풍공원 작은 음악회 등

이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피아골의 유래가 된 '피'(기장)로 만든 전통음식과 구례농·특산물 판매장도 준비되며 단풍공원에서부터 직전마을까지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남도 내륙의 유일한 관광·레저특구이자 야생화 생태특구인 구례는 3대 3미의 고장"이라며 "많은 관광객이 지리산이 붉게 물들어 가장 아름다운 지금 구례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감미로운 선율에 깊어가는 가을밤

30일 곡성 '숨사탕 음악회'·구례 '연리지 음악회'

가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곡성과 구례에서 열린다. 곡성 문화예술단은 30일 오후 7시 30분부터 곡성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숨사탕 음악회'를 개최한다. 또 구례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선종완)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마당에서 '제1회 연리지 음악회'를 연다.

◇곡성 '숨사탕 음악회'=이번 음악회는 베이비 부머 세대와 신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음악으로 1980년과 현재가 어울리는 장르로 지역주민이 참여해 만들어 간다. 특히 음악회에서는 음악의 해설과 노래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새로운 장르의 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지역 평생학습 과정에서 배운 벨리댄스와 기타, 색소폰 등 교육을 통해 얻어진 실력을 뽐내는 시간도 마련됐다. 숨사탕음악회는 문화와 음악을 자주 접하지 못하는 지역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음악을 통해 탈피함을 전달,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숨사탕음악회 김가숙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이 참여해 만들어 가는 행사로 매달 30일 음악회를 개최, 음악과 문화를 통해 희망과 사랑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례 '연리지 음악회'=이날 음악회는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구례 좌도농악보존회, 구례군 종합사회복지관 장수춤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부로 나눠 진행된다. 초청가수 신유를 비롯해 국악 조선하 명창, 바리톤 유환삼, 관현악 스티그마 등이 출연하고, 복지관 이용 장애인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음악회 출연진은 구례의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과 더불어 장애인들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재능기부로 참여해 됐다. 선종완 관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정서적 교감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화합과 소통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구례=이성규기자 lsg@

나주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가/무인텔

- 나주시 중앙동 1층 상가 대지 423㎡ 건물93.6㎡, 의류매장, 식당 성업 중. 매 5억9천만
- 나주시 송월동 나주역 앞 4층 무인텔 대지 1,152㎡, 객실 20, 관리실 2, 매29억

농지/임야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전 3,514㎡(대지, 임야 포함) 4차선 국도변 2층 주거지역 자연녹지 매5억 2천만
- 나주시 송월동 택지지구 대지 778㎡ 상업지역 4차선 도로변 나주시청 앞 매 8억8천만
-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15,868㎡ 혁신도시 인근 생산관리지역 매 16억
- 나주시 관정동 전 7,547㎡ 매립지 2차선 도로변 농업지역 매 3억2천만
- 나주시 동수동 전 배 과수원 2,784㎡ 공업지역 농공단지 옆 매 1억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전 5,600㎡(주택, 축사 포함, 일부 유실수 식재) 매 1억 7천만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임야 6,774㎡ 나주호 입구, 선산 적합 매5천만
-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 1,384,140㎡(대지, 농지 포함) 소나무 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 30억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70,835㎡ 4차선 국도변 전체 계획 관리지역, 남향, 매 17억
- 영암군 금정면 안로리 전 26,450㎡ 대봉 김나무 과수원, 자경, 임대시 고소득 보장 매 4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상가 건물

- 화정동 1층 225㎡ 12억(보1.3억 월600만)
- 치평동 6층 40억
- 쌍촌동 5층 15억(보1.7억 월700만)
- 풍암동 5층 18.5억(보1.4억 월97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 23억(보2억 월1,000만)
- 상가주택, 원룸건물
- 기타 10~100억 물건 다수

대지, 전용가능 녹지, 전/답

- 쌍촌동 6차선 도로변 대지 준주거지역 1,610㎡ 매23억(사육,병원 적합)
- 중흥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3,190㎡ 매36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10억
- 북구 용동동 생산녹지 2,600㎡ 7.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 해남군 대흥사부근 민박집 3.8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상무지구 우리들병원 ~세정아울렛 사이
☎ 010-5536-0382 062) 373-0382

“땅” 급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210-32번지
답 900평 생산녹지 나무식재 가능
용자 2억 4천만원
매가 4억 5백만원

공장부지 “땅” 급매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973
전 1,100평 계획관리지역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572-8
답 121평 계획관리지역
용자 9천만원
매가 1억 8천만원

주인직매 010-8676-1900